32상도 속임수 80종호도 헛소리



지안 스님의 임제록 강설

㊲ 방편

어떤 머리 깎은 비구들은 부처가 되기까지는 3아승지겁 동안을 수행해서 과보(果報)가 원만해져야 비로소 도(道)를 이룰 수 있다 하나니 여러분, 그대들이 만약 '부처는 최후에 마지막으로 얻는 것' 이라 말할진대 어째서 석가모니는 80년 후에 쿠시나가라의 사라쌍수 사이에서 옆으로 누워 돌아가셨으며, 그 부처님은 지금 어디 계시는가? 분명히 알아 두어야 하나니 부처님도 우리와 같이 나고 죽는 것이 다르지 않느니라.

그대들이 '32상과 80종호가 부처다' 하는데 그렇다면 전륜성왕도 응당 여래일 것이니라. 분명히 알라 허깨비일 뿐이니라.

옛사람이 말했다.

"여래께서 몸에 갖춰진 32상과 80종호는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따라주는 방편이니라. 부처님이 돌아가시면 아무것도 없다는 단견(斷見)을 낼까 염려되어 방편으로 헛된 이름을 세운 것이니라. 32상도 속임수요 80종호도 헛소리니라. 형상이 있는 몸은 깨달은 부처의 본체가 아니며, 형상이 없는 것이 부처의 참된 모습이니라."

중국 선종의 근본 주류는 돈오(頓悟)다. '단박에 깨닫는다' 는 점을 강조하여 점수(漸修)를 배격하는 입장을 취해 왔다. 물론 돈점(頓漸)의 문제에 대한 견해가 7가지의 주장으로 나온 7대 돈점이 있었지만 돈오점수와 돈오돈수가 대표적인 것이었다. 그러다가 송대(宋代)에 들어오면서 선의 5종(五宗) 가운데 임제종을 제외하고 다른 4종이 쇠미를 길을 가게 되고 임제종에 흡수되는 경향을 보여 임제종지가 가장 오래 전해지게 된 것이었다.

임제는 돈오돈수(頓悟頓修)를 주장하였으므로 돈오하면 더 이상 공부할 게 없다는 식으로 법문한다. 말하자면 점수의 이야기가 필요 없다 하는 것이다. 이 장에 와서도 처음부터 점수의 이야기를 부정해 버린다. 마치 사람인 내가 부처이지 사람인 나 밖에 부처가 없다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나는 부처로서 완전한 나이지 모자람이 있는 결격 인간이 아니란 말이다. 그야말로 인간성불론이 아니라 인간부처론이다. 부처님도 우리처럼 나고 죽는 생사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실존 현실을 자각하게 하며 부처님을 신비한 존재로 우상화하지 말라고 한다. 32상과 80종호를 부정하는 것은 〈금강경〉에 설해진 말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다.

〈금강경〉 사구게(四句偈)에서 "무릇 있는 바 모든 형상은 다 허망한 것이다. 만약 모든 형상을 형상이 아닌 것으로 보면 곧 여래를 보게 된다"고 하였다. '상을 떠나면 부처고 상이 있으면 부처가 아니다.' 상의 유무로써 부처와 중생을 판단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돈오(頓悟)는 무상(無相)으로 통한다. 옛사람이 말했다. 한 옛사람은 〈금강경〉 송을 지은 부대사(傅大士)이다.

규봉(圭峰)은 〈도서(都序)〉에서 돈오돈수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했다. "오(悟)와 수(修)를 한순간에 모두 완성하는 것을 말한다. 상상지(上上智)의 사람이 그 근기(根機)와 의지가 함께 뛰어나서 한 가지를 듣고 천 가지를 깨달아 위대한 총지(總持)를 얻으며 한 생각도 생겨남이 없이 과거와 미래가 모두 단절된다는 설이다. 비유하자면 한 타래의 실을 끊으면 한꺼번에 모든 실 줄이 단박에 모두 끊어져 버리는 것과 같다. 수행의 공덕은 한 타래의 실을 염색하면 모든 실 줄이 한꺼번에 단박에 염색되는 것과 같다."

그러나 규봉은 돈오점수를 주장하였다. 돈오점수설에서는 돈오돈수도 돈오점수에 속한다고 말한다. 〈도서〉와 〈수심결〉 등에 이렇게 말하고 있다. "비록 돈오돈수의 수행법이 최상의 근기가 깨닫는 것이라 하지만 만약 과거의 업까지 헤아려 생각해보면 이미 다생에 걸쳐 깨달음(悟)을 위해 점차적으로 닦아 훈습(熏習)한 것이 있었으므로 그 결과 금생에 와서 듣는 즉시 깨달아 한순간에 다 이루는 것이니 사실에 근거하여 논한다면 돈오돈수의 근기도 먼저 깨닫고 뒤에 닦는 선오후수의 근기라 할 수 있으므로 결국 돈오점수에 속한다 할 수 있다."

〈조계종 고시위원장〉

부처님 法의 바퀴를 굴리다



세상 속 경전읽기

㊲ 전법륜경(轉法輪經)

초전법륜(初轉法輪)은, 붓다께서 깨달음을 성취한 후, 바라나시 이시파타나(예언자의 숲) 녹야원에서 처음으로 안냐 콘단냐(Aññā-Kondañña), 왑파(Vappa), 밧디야(Bhaddiya), 마하나마(Mahānāma), 앗사지(Assaji) 등 5비구에게 하신 설법으로서 중도, 사성제, 팔정도 등의 가르침을 담고 있다. 이는 〈쌍윳따 니까야[SN 56.11]〉, 구나발타라 번역의 〈잡아함경 379번 전법륜경〉, 안세고(安世高) 번역의 〈불설전법륜경〉, 의정(義淨) 번역의 〈불설삼전법륜경〉 외에 〈사분률(四分律)〉, 〈오분률(五分律)〉 등에도 보인다. 후대 대승불교의 〈묘법연화경〉에서는 "붓다가 옛적에 바라나시에서 처음으로 법의 바퀴를 굴렸다"는 표현이 보인다. 〈전법륜경〉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출가수행자는 마땅히 쾌락의 탐닉과 고행의 양 극단을 떠나야 한다. 붓다에 의해 발견된 중도(中道)를 통해 이 양 극단을 벗어날 수 있으며 8정도가 곧 중도이다.

고집멸도(苦集滅道), 사성제를 각각 1) 서술[示轉, 고(괄고), 고집(갈애), 고멸(갈애의 제거), 고멸도(고멸에 이르는 방법, 곧 8정도)의 진리가 있다], 2) 수행실천[勸轉, 고가 규명되어야 한다. 고집이 놓아질 수 있다. 고멸이 증명될 수 있다. 고멸도가 개발 성숙될 수 있다], 3) 완수증명[證轉, 고가 바르게 잘 규명되었다. 고집이 놓아졌다. 고멸이 증명되었다. 고멸도가 개발성숙되었다]으로 세 번 굴려[三轉] 열두 가지 행[十二行相]으로 밝게 살펴 지견(智見)이 완전하고 청정해져서 무상정등정각[無上正等正覺, 최상의 깨달음]을 얻는다.

"비구들아, 출가수행자는 마땅히 양 극단을 떠나야 한다. 무엇이 양 극단인가? 열등하고, 천하고, 저속하고, 비천하고, 불선[不善. 무익(無益)]에 이르는 감각적 쾌락의 탐닉에 전념(專念)하는 것과, 고통스럽고, 비천하고, 불선에 이르는 고행[苦行. 자학(自虐)]에 전념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떠나야 할 양 극단이다. 진리를 완성한 자(깨달은 자, 붓다)에 의해 발견된(밝혀진) 중도를 통해 이 양 극단을 벗어날 수 있다. 중도는 안목[眼目]이 열리게 하고, 지혜를 주며, 고요함[寂靜]과 높은 지혜와 깨달음과 열반에 이르는 길이다. 그러면 중도란 무엇인가? 8정도[八正道. 여덟겹의 바른 길]가 중도이며, 이른바 정견[正見. 바른 견해], 정사유[正思惟. 바른 사유], 정어[正語. 바른 말], 정업[正業. 바른 행동], 정명[正命. 바른 생활], 정정진[正精進. 바른 정진], 정념[正念. 바른 마음챙김], 정정[正定. 바른 명상]이 8정도이다. 이것이 붓다가 깨달은 중도로서, 안목과 지혜가 열리고, 고요함과 높은 지혜와 깨달음과 열반에 이르는 길이다. 〈중략〉 '고멸도의 진리가 있다' 라는, 내가 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진리)에 대한 안목과 지혜가 생기고, 통찰지[洞察智]가 생기고, 명지[明智]와 광명[光明]이 생겼다. ' 고멸도가 개발성숙될 수 있다. '라는, 내가 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 대한 안목, 지혜, 통찰지, 명지, 광명이 생겼다. ' 고멸도가 개발성숙되었다. '라는, 내가 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 대한 안목, 지혜, 통찰지, 명지, 광명이 생겼다.

세상 이치(진리)를 3전(三轉) 12상(十二相)[고집멸도의 서술, 수행, 증명]으로 밝게 살펴 지견(智見)이 완전하고 청정해지기 전에는, 하늘사람, 마귀, 범천(梵天), 사문과 브라만, 왕자와 사람들에게 무상정등정각[無上正等正覺,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다고 선포할 수 없었다. 그러나 진리를 3전 12상으로 밝게 살펴 완전하고 청정해진 후에는 … 무상정등정각을 얻었다고 선포하였다."

〈배광식 서울대 치의대학원 명예교수〉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㊸ 닦음의 길 23

사경, 경전을 사색하는 시간
〈寫經〉

불교에 입문한지 얼마 되지 않아 수련회에 참가한 적이 있는데, 프로그램 가운데 〈반야심경〉을 사경(寫經)하는 순서가 있었다. 그날 저녁 절을 한 번 할 때마다 한 글자씩 종이에 베껴 쓰는 수련을 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270배를 하면서 〈반야심경〉 전체를 쓰고 읽은 셈이 되었다. 난생 처음 해본 경험이었지만, 산란했던 마음이 가라앉고 왠지 모를 고요함이 느껴졌다. 이전에도 경전을 공부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정성껏 읽은 적은 없었던 것 같다. 사람들이 왜 사경을 수행이라 생각하고 실천하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사경(寫經)이란 글자 그대로 경전을 베껴 쓰는 것을 의미한다. 사경은 본래 경전을 널리 유통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이는 불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있는 일이었다. 예전에는 경전을 널리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직접 종이에 베껴 쓰는 것 이외에 별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쇄술의 발달로 경전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자 유통 목적으로서의 사경은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었다. 대신 사경은 공덕을 쌓는 행위라는 새로운 의미가 그 자리를 차지하였다. 붓다의 말씀인 경전을 정성껏 베껴 쓰면 공덕이 쌓여서 미래에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믿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사경은 수행으로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 다시 말하면 사경을 통해 불교의 목적인 깨침에 이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물론 글자만 베껴 쓴다면 수행으로써 큰 의미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寫)' 란 글자만 베껴 쓰는 것이 아니라 경전에 담긴 붓다의 가르침을 우리의 몸과 마음에 새기는 행위다. 즉 경전의 말씀을 한 자 한 자 정성껏 새기면서 붓다를 닮아가야겠다고 발원(發願)하는 성스러운 의식인 것이다. 이러한 수행이 무르익어 현실에서 이루어진다면, 사경은 깨침을 향한 수행으로써 충분한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실제로 사경을 해보면, 마음집중이 되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차이가 많이 난다. 글씨만 보아도 바로 알 수 있다. 일념으로 사경을 하면 글자가 매우 가지런하지만, 마음에 번뇌가 일어나게 되면 글자가 고르지 못하다.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이 다른 곳에 가있기 때문에 집중이 되지 않은 것이다. 사경은 몸과 마음을 하나로 집중시키고 간절한 마음으로 수행해야 한다. 그렇게 수행을 하면 경전에 담긴 붓다의 진리와 글을 쓰고 있는 내 몸과 마음이 '하나' 되어 사경 삼매(三昧)에 이르게 된다. 사경이 보조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독자적인 수행체계가 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화엄경〉의 결론이라 불리는 〈보현행원품〉에는 부처님이 사바세계에 오기까지 발심하고 끊임없이 정진하였는데, "살갗을 벗겨 종이를 삼고 뼈를 쪼개 붓을 삼았으며, 피를 뽑아 먹물을 삼고 사경하기를 수미산만큼 했다"고 하였다. 〈법화경〉에서도 "이 경전을 수지독송하여 바르게 기억하고 익히며 베껴 쓰는 중생이 있다면, 이 사람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직접 만나 경전을 들은 것과 같다"고 하였다. 그만큼 사경이 중요하며 공덕이 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사경은 단순히 경전을 베끼는 행위가 아니라, 그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경은 붓다의 말씀을 사색하는 시간이라 할 수 있다. 그 사색이 무르익어 일상으로 이어질 때, 듣고(聞) 사색(思)하며 실천(修)하는 불교 공부의 세 박자가 실현되는 것이다.

그런데 경전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글자만을 베껴 쓴다면, 이것은 올바른 수행이라고 할 수 없다. 그저 경전에 먹히고 굴림을 당할 뿐이다. 아무리 사경을 많이 해도 삶의 질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참다운 사경이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주체가 되어 경전을 굴릴(轉經)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이 다름 아닌 문제의식을 갖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경하며 일상에서 실천하는 일이다. 사경하기 전에 절을 하는 것도 이를 위해서가 아니겠는가. 내가 경전을 굴리고 있는지, 경전이 나를 굴리는지 한번 돌아볼 일이다.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침향 향기나는 초 침향초

- 대중이 모일때 가장 적합한 초 -

침향은 예로부터 향료로 피워 극히 귀한 기운을 갖는다고 전해집니다.
침향을 피워 향기를 맡게 되면 정신이 맑아지고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법당, 집, 사무실, 기도처 등 다양한 곳에서 침향의 향기와 함께하세요.



식물성 침향초



연꽃칠성촛대

연꽃촛대



밀납PC컵초 크리스탈받침(별도판매)



연잎초찻잔, 연꽃초찻잔 Set

해광산업 031-333-0242 · 010-5848-0189

현대불교신문 구독안내

불교의 현대화 ①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② 생활 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 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③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현대불교신문 을 검색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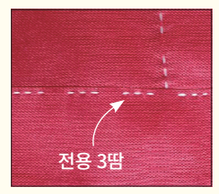
신문을 구독하시면 생활안내 / 불자정보(사찰, 포교당 양도 및 기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2004-8200

만복승복(가사)

특허권자가 승복을 지으면 뭔가 다릅니다!!

본 승복사는 가사를 전문적으로 짓는 업체입니다. 가사를 어떻게 하면 더 좋고 더 멋있는 가사를 지을 수 있을까 노심초사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업체입니다. 만복사(승복사)는 미싱 가사가 아닌 수가사식으로 지은 전통 3땀 가사이오며, 타 업체 가사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가사의 가로, 세로의 크기가 거의 오차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음 놓고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땀 가사로 발명특허까지 출원하여 많은 스님들께서 좋아하십니다. 믿고 맡겨주십시오.





만복승복
010-3258-3568 / 031)844-5233
의정부시 의정부동 160번지 라동 23호(제일시장 내)